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소식지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Newsletter

발행처 :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발행인 : 김분한 편집인 : 탁영란, 황선영 발행일 : 2016년 03월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제2의학관 간호학부 TEL. (02) 2220-0700 FAX. (02) 2295-2074

학부 소식

■ 간호학부, 5년간의 간호교육인증 획득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주기 간호교육 인증 평가(2014년도 하반기)에서 간호학부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대학의 자체평가와 서면 및 현지방문평가를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향후 5년간의 간호교육기관으로서의 인증을 획득하였다.

■ 2015년 서울 캠퍼스 학과평가 결과, 인문사회계열 3위 차지

대학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12년도부터 실행되어온 학과평가에서 우리 간호학부는 인문사회계열 25개 학과 중 2013년 5위에 이어 2015년도에는 3위를 차지 하였다. 이는 김분한 학부장님 이하 교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열정과 합심으로 이루어낸 결과물로서 앞으로도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학부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간호 교육원 개원

2015년 11월 11일, 간호학부/임상간호정보대학원 부설 간호교육원이 개원하였다. 간호교육원은 현대 사회의 노인의 증가, 건강·복지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급증하는 관련서비스 요구도에 부응하고자 건강, 간호, 복지 콘텐츠의 개발과 교육을 목적으로 개원하게 되었다. 한양대학교 간호학부는 건강·복지 영역의 전문가 양성교육 기관으로서 재취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간호인재의 양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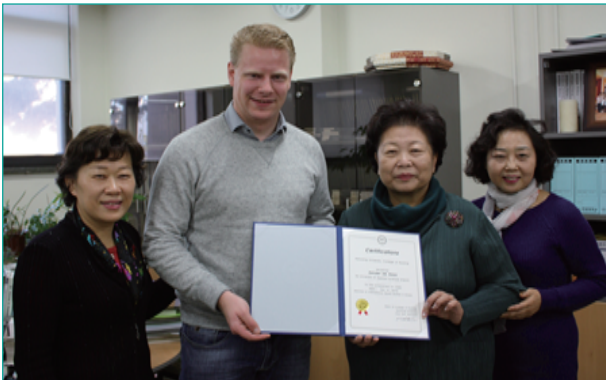
■ 간호학부 국제화 선도 프로그램 선정

2015년도 대학 국제화 선도 프로그램에 간호학부에서 지원한 2개의 제안서가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7월에는 네덜란드 Utrecht University summer school의 global leadership 프로그램에 2학년 5명과 3학년 7명의 총 12명이 2주일간 연수를 받고 왔으며, 2016년 1월에는 필리핀 Centro Escolar University의 지역사회실습연계 국제 보건 프로그램에 3학년 9명과 2학년 1명의 총 10명이 참여하고 돌아왔다.



■ 간호학부 네덜란드 교환학생 de Haan, Sander 방문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네덜란드 Utrecht University에서 교환학생으로서 de Haan, Sander가 우리대학을 17주간 방문하여 다양한 수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아갔다.



■ 국가고시 응원

2016년 1월 22일 간호학부 국가고시가 열렸다. 추운날씨에도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한 각 학교의 응원 열기만큼은 뜨거웠다.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또한 학생회와 동아리 대표들로 구성된 응원단들이 열띤 응원을 펼쳤다. 4년이란 시간동안의 노력을 쏟아 붓고 이제 진정한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될 발걸음의 시작이었다.



■ 입학 30주년 기념 졸업생 홈커밍데이

2015년 10월 24일, 제 16회 졸업생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홈커밍데이가 열렸다. 홈커밍데이에서는 20여명의 선배님들과 교수님, 재학생들이 함께 훈훈한 시간을 가졌으며, 간호학부 동아리인 모노크롬의 공연이 이어져 자리를 빛내 주었다. 선배님들께서는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후배들에게는 간호학부의 옛 추억과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 임상실습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Joint Meeting

2015년 9월 16일 간호학부 교수님들과 한양대학교 의료원의 국장님 이하 파트장님께서 '임상실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Joint Meeting'을 가졌다. 학생들 임상실습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교수님과 실무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제 4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및 학술제

제4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및 학술제가 11월 10일에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올해의 Mother Lamp는 한양대학교 이순우 부장님께서 맡아주셨다. 4학년 선배들의 논문계획안 발표가 있었고, 국제화 프로그램의 발표 시간이 있었다. 또, 2학년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위하여 여러 공연팀이 축하 공연을 해주어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 제 2회 RN-BSN 학술제

2015년 11월 9일 열린 제 2회 RN-BSN 학술대회에서 3,4학년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 날은 한양대학교에서 RN-BSN 과정을 밟고 석, 박사과정을 마치신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이은주, 조진희 교수님을 연자로 모시고 '학문적 자기계발을 통한 경력 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강의 후 학생들은 선배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고, 선배님들은 자신의 경력관리를 통한 진로 상담을 들려주어 후배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RN-BSN 신입생과 재학생의 대면식

2015년 03월 16일 RN-BSN 신입생과 재학생의 대면식이 있었다.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바빠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았지만, 많은 학생이 참석했고, 선 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졸업식

2016년 2월 19일, 2015학년도 전기 간호학부, 임상간호정보 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간호학전공 48명, RN-BSN간호전공 49명을 포함하여 일반대학원 박사 10명, 석사 17명, 임상정보 대학원 석사 24명이 학위취득을 하였다. 학위 수여식은, 몇 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학위를 취득한 모두의 '새로운 시작'에 응원을 보낸다.



대학원 소식

■ 일반대학원 학위현황

2015년도 봄학기(2월)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구분(석,박사)	전 공	성 명	논문 제목
박 사	간호학	신 혜 선	혈액투석 환자분류 도구개발
		김 선 영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죽음과 죽음 이후 의식에 대한 문화적 체험
석 사	간호학	강 소 희	사무직, 비사무직 남성 근로자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생활습관 위험요인 비교 -후향적 코호트 연구-
		김 인 숙	병원 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 지 현	Q방법론을 적용한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김 지 현	간호사의 혈액 및 체액의 노출과 표준주의 인지도 및 이행도
		임 은 정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우울, 삶의 질
		박 지 명	수술실 간호오류 예방을 위한 사례중심 멀티미디어 학습콘텐츠 개발
		홍 주 영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노인전문 간호사과정	김 남 석	요양보호사의 성 지식, 성 태도와 성적 표현에 대한 대처반응

2015년도 가을학기(8월)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구분(석,박사)	전 공	성 명	논문 제목
박 사	간호학 전공	김 연 미	다문화부부의 전인건강을 위한 간호사 주도의 가정방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도 경 진	한국 청소년의 행복 체험
		송 명 경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경험
		오 은 미	한국 노인 허약사정 도구 개발: 2008, 2011년도 전국노인 실태조사 자료이용
		이 미 준	간호사의 간호과외 경험과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간호배상책임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전 상 희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영양상태와 영양상태 변화요인: 종단연구
		하 루 미	수술 중 간호행위의 환자분류에 따른 간호원가 산정
		홍 주 은	만성조현병환자 어머니의 감사경험
석 사	간호학	금 보 영	만성 요통 환자의 기분상태와 건강 관련 삶의 질
		김 아 립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 후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 역할 발달
		김 혜 경	폐경 후 여성 관절염 환자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 및 건강행위
		박 경 실	국내 HIV 감염자의 우울과 불안이 심혈관질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HIV/AIDS 코호트 연구 자료 분석
		배 옥 연	병원간호사의 경력정체가 이직충동 및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오 혜 영	병원 입원 노인 환자 가족 보호자의 섬망 지식수준, 교육 요구도 및 정신건강
		장 미 선	프리셉티브에서의 상호 의사소통 유형이 신규간호사의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최 유 리	응급실 간호사의 인간 중심 간호에 미치는 영향요인
	노인전문 간호사과정	류 정 옥	수술 후 통증과 자가 통증조절기 사용 실태조사: 청년, 중년, 노년기 환자 비교

■ 동문 소식



한양대학교 간호학부의 동문이자, 현재 간호 학과장인 탁영란 교수님께서 2016년 대한간호협회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1학기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이름	학 과	전 공	논문 제목
임민지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노인및치매 간호전공	재가노인의 허약정도에 따른 신체기능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
우정수	노인복지학과	임상사례 관리전공	치매노인의 점화방법을 이용한 잇솔질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김수진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노인및치매 간호전공	만성폐질환 노인 환자와 성인 환자의 흡입제 사용 숙련도와 투약이행도 비교
김현정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노인및치매 간호전공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영양 예측 요인
이선미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정신보건 간호전공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정신질환자의 낙인극복 경험
김민수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노인및치매 간호전공	한국형 간호대학생 영적간호수행척도 개발 및 검증
성수영	노인복지학과	임상사례 관리전공	심폐소생술금지와 관련된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인식과 윤리적 태도조사 및 비교
김은주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노인및치매 간호전공	사회복지시설 거주 남성노인의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및 사회적 지지와 우울감과의 상관관계
장미옥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노인및치매 간호전공	병원간호조직 문화유형과 이직의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지은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노인및치매 간호전공	노인의 이성교제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양은주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정신보건 간호전공	통합적 정보제공이 고위험신생아 부모가 지각한 스트레스 및 간호지지에 미치는 효과
조은희	노인복지학과	임상사례 관리전공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노인 배우자의 인지기능에 따른 뇌졸중관련 지식정도
민혜숙	노인복지학과	임상사례 관리전공	의료급여 사례관리 고위험군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군의 의료이용 비교
이현준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정신보건 간호전공	페퍼민트 오일 귀 마사지가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에 미치는 효과

2015년도 2학기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이름	학 과	전 공	논문 제목
엄주옥	노인복지학과	보험심사 관리전공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 전·후 의료기관 종별 외래 당뇨환자의 의료이용 비교
김현희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노인및치매 간호전공	중장년층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건강증진 행위
임지영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정신보건 간호전공	임상간호사의 이직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제약회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임난희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정신보건 간호전공	임상간호사의 분노와 대인관계
장수영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정신보건 간호전공	정신간호사의 전문직자아개념, 직무만족, 소진 정도
윤은정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정신보건 간호전공	감정조절이 어려운 기혼여성을 위한 인지행동프로그램의 효과
박미란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노인및치매 간호전공	낙상으로 인한 하지골절 노인환자의 유형분석
김금수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노인및치매 간호전공	예비노인과 노인의 행복감 비교연구
배경옥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정신보건 간호전공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
염정희	임상노인 전문간호학과	노인및치매 간호전공	종합병원 노인환자의 퇴원 전 우울, 질병지각과 사회적 지지

학생 활동

■ 새내기 배움터

2015년 2월 27일 ~ 2월 28일, 1박 2일 동안 경기도 양평군 SN 유스호스텔에서 15학번 새내기들을 위한 새내기 배움터가 열렸다. 간호학부 학생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게임과 동아리에서 준비한 각종 공연들로 알찬 시간을 보냈다. 총 90여 명의 간호학부 학생들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마지막까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마쳤으며, 교수님들께서도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덕분에 신입생들에게는 첫 번째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입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 농촌 간호봉사

2015년 9월 19일 ~ 9월 20일, 1박 2일 동안 경기도 양평 여물리에서 농촌활동과 간호봉사가 이루어졌다. 낮에는 피 뽑기 등의 농촌활동과 혈압 혈당 치매검사와같은 간호 봉사가, 밤에는 학생회가 준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으며, 즐겁고 보람차게 마무리되었다. 더불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간호학부 학생들의 친목을 향상시키는 측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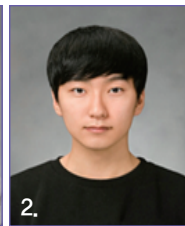
■ 2015 대동제

2015년 5월 20일 ~ 5월 22일, 2박 3일에 걸쳐 한양대학교 대동제가 열렸다. 간호학부 학생회에서도 학생들과의 교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부 주점을 열었다. 학생회 포함 50여명의 학생들이 운영하며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였고, 간호학부 학생들이 모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주점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또한 간호학부 동아리인 '모노크롬'의 live공연이 14년도에 이어 올해도 더해져서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가 제공되었다.



■ 2016 간호학부 학생회

2015년 한 해 동안 간호학부를 위해 힘써준 제 3대 간호학부 학생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 간 전 간호학부 학생회장 김정민, 부학생회장 손희도 외 16명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에는 새로운 간호학부 학생회장 한창민, 부학생회장 유준호를 중심으로 더욱 멋진 학생회가 되길 바랍니다.



1. 간호학부 학생회장 한창민
2. 간호학부 부학생회장 유준호

■ 의대, 간호학부 연합동아리 아가페 활동



■ 간호학부 동아리 ‘보느’



국제화 교류 프로그램 후기

■ 네덜란드 - Utrecht University - 교류프로그램에 대하여

2014033463 김지은
햇볕이 따스한 4월의 어느 날, 한양대학교 간호학부에 ‘네덜란드 교류프로그램’이라는 바람이 불어왔다. 이 프로그램은 선발된 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네덜란드의 Utrecht Univ.의 Summer school에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함께 Health Care와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간호학부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폭넓은 비전과 시야를 주고자 밤낮으로 힘써주신 덕에 얻을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다.

이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기억에 남는 경험들 중 첫 번째는 Utrecht University의 수업이다. 강의중심, 지식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대학수업과 달리, 네덜란드의 대학수업은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수업방식에 익숙했던 우리는 수업시간 도중 학생들이 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자리에서 학생과 교수님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수업뿐만 아니라 과제의 형식 또한 자유로웠는데, 주어진 것을 해결하는 데에 익숙했던 우리들은 새로운 방식의 과제에 매우 당황했었다. 과제의 해결 방식에 대해 여쭙어 봐도 교수님들께서는 ‘모든 것은 너의 자유다. 나는 단지 너의 선택을 도울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뿐,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며, 그것은 후에 우리에게 큰 보람을 가져다주었다. 학교생활 외에 얻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은 ‘여행’ 이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네덜란드의 다른 도시들을 여행하기도 했는데, 여행들은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양식이 되었다.

또한 Utrecht University는 우리에게 ‘친구들’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우리는 스리랑카, 아랍, 미국, 네덜란드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다. 나와 동기들은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에게 호박전, 김, 삼겹살 등의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고, 그 친구들은 우리에게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 주었다. 네덜란드에서 만난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으면서 우리는 소중한 관계가 되었고, 그 인연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Utrecht University. 한양대학교 간호학부에서 얻을 수 있었던 ‘네덜란드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기회는 나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다.



■ 필리핀-Centro Escolar University - 국제화 프로그램

2013007700 심수민

2년 전 다녀왔던 필리핀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가게 되었던 필리핀 국제화 프로그램. 2년 전과는 매우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매우 뜻 깊고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느끼고 돌아온 12박 13일이었다. 가기 전부터 IS에 대한 불안과 필리핀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의 피랍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다.

우리가 CEU 학생들과 함께 했던 실습은 지역사회 실습이었다. 아직 한국에서도 지역사회 실습을 나가지 못했는데, 필리핀에서 먼저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빈민촌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한 빈민가에 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건강사정을 함으로써 간호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 7일간 머물면서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우선순위도 정하며 직접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간호를 제공할 수 있었다. 사실 이 7일간, 숙소가 아닌 필리핀 지역사회에서 먹고 자는 것이 많이 힘들고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화장실도 버튼을 내리면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닌 바가지로 물을 퍼서 내려야만 했고 잠자는 중에 도마뱀 소리가 들려 여러번 잠을 깨기도 하고 필리핀 학생들이 즐겨먹는 달고 짠 반찬들도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아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이렇게 지나고 나니 다 그게 추억이었고 함께 했었기에 즐거운 경험이었다. 지역사회 실습에서는 영어가 아닌 타갈로그어로 필리핀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맡은 부분은 백신에 관한 부분이었다. 필리핀은 각 지역마다 보건 지소가 설치되어있어 무료로 백신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육해 줌으로써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 다음 주 실습에는 같은 지역사회에 사람들의 혈압을 측정하였다. 서툰 타갈로그어로 밝게

인사하며 다가가니 사람들도 환하게 웃으며 선뜻 자신의 팔을 내주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각 팀별로 간호교육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영양에 관한 주제로 역할극을 하게 되었다. 유창한 타갈로그어를 할 수는 없어 입모양으로 흥내를 내고 우리 뒤에서 필리핀 친구들이 대본을 읽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역할극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역할극을 보여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모든 질문에 응답하는 잘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한국인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연예인을 보는 듯한 분위기여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싸인도 요구하는 등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떠나는 내내 아이들이 많이 생각나고 우리가 제공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득했다.

또한 필리핀의 WHO(세계보건기구)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살면서 다시하기 힘든 아주 귀한 경험이었다. 평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제보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2주간 필리핀에 머물면서 궁금했던 것도 듣고, 퀴즈를 통해 받은 WHO 모자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12박 13일, 길지만 막상 짧았던 그 시간동안 다양한 간호의 측면을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간호학생을 보며 간호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이곳에서 느낀 모든 경험을 토대로 나의 간호 철학을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편집/정리 : 고찬영, 김혜인